



1982년 3월31일 2만여 인파가 찾은 해태와 MBC의 홈개막전을 시작으로 무등골의 프로야구 역사가 시작됐다. 2010년 592만8626명의 관중을 유치하며 29시즌 만에 1억 관중을 돌파한 프로야구는 30돌을 맞는 올 시즌 사상 첫 600만 관중에 도전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프로야구 30년 숫자로 본 기록들

풍성한 기록, 최다관중 화답

그라운드에는 뜨거웠다

1 MBC청룡-삼성 라이온즈 1982년 3월 27일 첫 경기

1982년 3월27일 동대문 운동장에서 MBC 청룡과 삼성 라이온즈의 프로야구 최초 경기가 열렸다. MBC 이길환은 1회초 선발로 투수로 등판해 프로야구 1호 선발투수가 됐고, 1호 타자는 삼성의 권보성이 됐다. 삼성 이만수는 1회 첫 안타를 뽑은 뒤 3회에는 홈런을 기록하며 1호 홈런과 1호 타점의 주인공이 됐다. MBC 이종도는 이날 7-7로 맞선 10회말 삼성 투수 이선회를 상대로 좌측 담장을 넘기는 만루홈런을 터뜨리며 1호 만루홈런과 1호 끝내기 홈런 기록을 동시에 세웠다. 이날 3회부터 MBC 마운드를 책임진 투수 유종겸은 프로야구 첫 승리투수로 남았다.

9 국가대표팀 베이징 올림픽 9전 전승 사상 첫 금메달

김경문 감독을 사령탑으로 한 야구국가대표팀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9전 전승의 기록으로 아마 최강 쿠바를 물리치고 남자 구기종목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했다. 미국과의 풀리그 첫 경기에서 8-7 역전승을 거두며 연습 행진을 시작한 한국은 난적 일본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쿠바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은 3-2로 앞서고 있던 9회말 1사 만루의 역전 위기에서 정대현을 앞세워 병살타를 잡아내며 극적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도 한국 야구의 위력이 발휘됐다. 2006년 첫 대회에서 4강에 진출했던 한국은 2009년에는 준우승까지 차지하며 그 위상을 과시했다.

10 KIA타이거즈 한국 시리즈 V10 금자탑

2009년 10월24일 KIA 타이거즈는 잠실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한국시리즈 7차전에서 나지완의 끝내기 홈런에 힘입어 6-5의 짜릿한 역전드라마를 장식하며 12년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차지했다. 1983년 전신 해태시절 첫 우승을 차지한 뒤 9번 챔피언 자리에 올랐던 KIA는 최희섭·김상현으로 이어진 'CK포'와 로페즈·윤석민·양현종을 앞세운 탄탄한 마운드로 정규시즌 1위에 이어 한국시리즈까지 제패하며 'V10'이라는 프로야구 대기록을 세웠다.

22 SK와이번스 22연승 아시아 신기록 수립

SK 와이번스는 19연승으로 2009 시즌을 마감, 1986년 삼성 라이온즈가 기록한 16연승 기록을 넘어 아시아신기록을 수립했다. 2010 시즌에서도 SK는 개막 후 3연승을 달리며 연승 기록을 22승까지 늘렸다. 세계 기록은 1916년 메이저리그 뉴욕 자이언츠가 기록한 26연승이다.

358 KIA-LG전 무박 2일 358분 프로야구 한 경기 최장시간 신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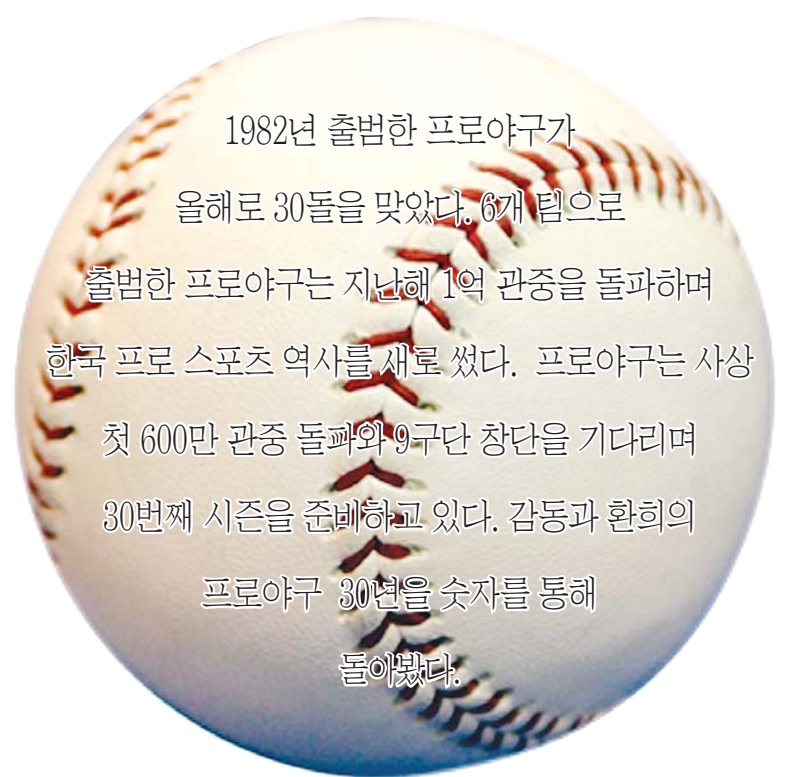
2009년 5월21일 오후 6시31분 무등경기장에서 시작된 KIA와 LG와의 경기는 다음날 오전 0시29분에 13-13 무승부로 끝났다. '무박2일'로 진행된 경기는 5시간58분(358분)동안 계속돼 프로야구 한 경기 최장시간 신기록을 세웠다. 앞선 기록은 2008년 9월3일 잠실구장에서 두산과 한화가 연장 18회 최장인닝 접전 끝에 기록한 5시간51분(351분). 연장 12회까지 치른 경기로는 1982년 6월3일 부산 구덕구장에서 해태가 롯데를 6-5로 꺾는데 걸렸던 5시간23분(323분)이 최고였다.

2318 '기록 제조기' 삼성 양준혁 최다 안타

'기록 제조기' 삼성 양준혁의 안타 행진이 2318에서 멈춰섰다. 1993년 데뷔 후 도루를 제외한 타격 전 부분의 기록을 갈아치운 양준혁은 2010년 9월19일 SK와의 홈경기를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2135경기에 출전한 양준혁은 통산 0.316의 타율과 351홈런 1389타점을 남겼다.

3003 한화 송진우 최다 이닝 마운드 작별

2009년 9월23일 프로야구의 전설 송진우가 LG와의 경기를 끝으로 마운드와 작별을 고했다. 1989년부터 21년 동안 한화에서 활약했던 송진우는 통산 672경기에 출전해 3.51의 방어율로 210승(153패)과 103세이브를 기록했다. 3003이닝이라는 최다 이닝 기록을 남긴 송진우는 2048탈삼진으로 역시 최다 탈삼진 자리에 올랐다.



5928626 관중 600만시대 '제 2의 부흥기' 누려

2010년 프로야구는 이른 개막과 월드컵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592만8626명의 관중을 동원하며 역대 최다관중 기록을 갈아치웠다. 정규시즌 입장 수입도 412억1414만8900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다.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143만8768명의 관중을 기록했던 프로야구는 1995년 540만6374명으로 첫 500만 관중을 돌파하며 한국 최고의 프로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 2000년 들어 침체를 견뎌던 프로야구는 WBC와 베이징올림픽 등 국제대회의 선전에 힘입어 제2의 부흥기를 맞으며 2011년 600만 관중 돌파를 노리고 있다.

100000000 28년만에 1억번째 유료 관중 탄생

2010년 5월30일 SK와 롯데의 경기가 열린 문학구장에서 프로야구 1억번째 유료관중이 탄생했다. 프로야구가 개막한지 29시즌, 1만3865경기 만에 1억 고지를 넘어서면서 국내 프로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관중 1억 시대가 열렸다. 1억 관중이 들어선 이날 KIA와 한화의 경기가 열린 무등경기장을 비롯해 문학·목동·잠실 등 4개 전구장이 매진되면서 프로야구 사상 첫 전구장 이틀 연속 매진기록까지 동시에 작성됐다. <김어울기자 wool@kwangju.co.kr>

